

[가정축제Gift 2] “성경적 자녀 양육”

이기복 교수 / 2003 / 페이지 수: 3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은 자녀의 심정을 알아주는 공감능력입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은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 아는 공감능력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 눈높이로 내려가서 자녀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시기적절한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주기

그러나 우리의 자녀교육 방식은 내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 자녀들이 다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다 한 것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쏟아 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의 상처와 열등감이 제일 많이 투사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백지로 태어납니다.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부모가 “너는 참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울을 비춰주면 자녀는 “나는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자아상을 만듭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너를 누가 좋아하겠니? 넌 못났다. 넌 잘하는 게 없어”하는 거울을 비춰주면 아이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못났어. 난 잘하는 게 없어”라는 자아상을 만듭니다.

내 거울 표면이 깨져서 깨져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하고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부모가 한 방식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우리 부모가 한 방식이 너무 싫어 무조건 반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꽃꽂이를 배울 때도 연수를 하고, 교사를 하려면 교육대학에서 4년 이상 공부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인격을 맡은 막중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껏 사랑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사랑의 확신과 능력의 자신감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너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녀가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릴 때 조건 없는 사랑을 흠뻑 줘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배웁니다. 그 기초 위에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지도자감이 없습니다.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응석을 받아 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힘들까봐 아무 것도 듣게 하지 않고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모두 지고 가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엄마를 위해 이것을 좀 들어주렴”하고 짐 하나를 맡긴 다음 집에 와서 남편에게 아이가 엄마를 도운 일을 칭찬해주면 아이는 그것을 듣고 “나도 엄마 아빠에게 공헌할 수 있구나”하고 깨닫습니다. 이타적인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물질을 풍족히 주고 보호하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미국에 언어 연수를 보내는 것보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고생스러운 현장에 보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훨씬 깊어지고 정신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워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젊은이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를 분노케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요하고 인격을 무시하며 지배하면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소유, 애착,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조종합니다. 자녀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보다 큰 그릇이 됩니다.

강하게 키워라

둘째 부부갈등으로 자녀는 분노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면 자녀는 여러분에게 분노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자녀들은 불안해하고 분노합니다. 자녀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과잉기대'를 할 때 분노합니다. 둘째 아이 키울 때는 현실 감각이 생겨서 좀 낫지만 우리 대부분이 큰 애를 키우면서 한 번쯤 '이 아이는 천재인가 봐'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커서 아이가 아무리 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천재가 아닙니다. 장점도 있지만 우리 처럼 흠 있고 약점이 있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후회감, 죄책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세우고 살릴까?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할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결국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십니다. 후회와 죄책감을 주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워 우리 자녀에게 대해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반항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면 이 자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실망했다. 너를 낳은 것이 후회 된다"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실망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실망했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의 방법

여러분은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끝없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항하고 말을 안 들어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너는 소중한 존재다"란 말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글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하고 말하십시오.

둘째 "너로 인해 기쁘다"고 말하십시오. 자녀를 보고 괜히 웃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왜 웃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너만 보면 기쁘다"고 말하십시오.

셋째, "지금도 자랑스럽다"고 말하십시오. 제 아들이 이번 어버이날 제게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드시 되겠습니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안쓰러워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도 너는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지금 네가 자랑스럽다"

넷째, "너는 독특하다"고 하십시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다. 너는 꼭 필요

한 존재다.” 만일 여러분에게 네 명의 딸이 있다면 밑에 딸에게 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섯째, 특히 사춘기 자녀에게 “아직은 미완성이란다. 너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도 네 나이 때는 그랬단다. 아니 너보다 못했단다.” 실망스럽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망하지 마라”고 말하십시오.

일곱째 “누구나 약점이 있다. 아빠도 약점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부모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청소년 자녀는 굉장한 자유를 누립니다. 부모 역할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열 두 제자를 사랑하셨지만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제자가 한 명 있다는 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사랑해도 상대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묵묵히 살면 우리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훈련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라고 말하십시오.

‘우리 부모를 용서하라’는 말을 하십시오. 엄마 아빠도 약점이 있고 때로 실수를 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부모를 용서하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줄 선물은 중보기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상처를 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 교육의 마지막은 우리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라, 세상으로”하고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녀의 손을 놓으셔야 합니다. 손을 놓을 수 있는 최대의 길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길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